


6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01. 한미관계의 역사와 주한미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후까지 미국의 시각과 정책 • 한미동맹의 형성과 변화 • 미국인의 시각 - <i>Steel Helmet</i> (1951) 	03. 기지촌 계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이중적 정책 • 기지촌의 경제학 • 안정리 사건과 기지촌정화운동
학습목표	02. 군 위안부 제도의 (재)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쟁 중 국군 '특수위안대' • 1950년대 연합군 위안소 • 1960-80년대 기지촌의 정착과 관리 	04. 경계와 주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지촌 여성의 정체성 • '전쟁신부'가 된 여성들 • 혼혈인
학습내용		

6주차 |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4차시

경계와 주변인

6주차 | 학습목표

4차시 경계와 주변인




학습목차

학습목표

- 기지촌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 기지촌 사람들의 정체성과 경계의 문제, 주변인과 경계를 넘는 사람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기지촌 여성의 정체성
- '전쟁신부'가 된 여성들
- 혼혈인



기지촌 여성의 정체성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이번 차시에는...

- 게토 기지촌 안에서 생활한 사람들의 정체성, 그 경계 너머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기지촌을 다룬 문학작품에서 ‘양공주’

- 군사주의, 미 제국주의의 ‘희생양’으로 재현
- 가부장의 무능력, 무책임성, 폭력성 경험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기지촌으로 오기까지 여성들의 경험

- 불행한 가정 환경, 남성에 의한 폭력의 기억
- 폭력에 대한 여성의 저항을 억누르는 사회적 편견
- 가부장제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순종과 희생,
순결 이데올로기 + 전쟁과 가난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기지촌으로 오기까지의 여성들의 경험

- 생존 혹은 가족 부양을 위해서,
정상적인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기지촌으로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 1966년 실태조사: 윤락여성 76% 양친이 없다,
72% 국졸 이하 학력, 56% 생활고 때문에 성매매 ”

아세아여성연구, 윤락여성 실태조사, 1966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기지촌으로 온 여성들

- 인신매매, 사기, 생계를 위한 직업소개 등
- 자발성의 형태를 띠지만 사회 구조적 병폐로 인한 강제적 유입
- 국가와 민족의 이익 + 젠더 이데올로기의 모순적 작동
→ 여성에 대한 억압체계 재생산
- ‘국가가 규제하는 성매매’라는 구조가 은폐된 채 작동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기지촌의 공고화, 그리고 ‘양공주’

- 국가의 주도로 기지촌 여성에 대한 통제 강화
- 사회적 낙인과 배제의 심화
- 불합리한 사건, 편견의 대상이 된 기지촌 여성
- 민족, 젠더, 계급이 교차하는 지점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기지촌 여성이 처한 현실

- 미군에게 ‘안전한 섹스’를 제공하는 공간
- 여성에 대한 물리적 폭력, 착취, 강제가 난무하는 위험한 공간
- 미군, 한국인 업주, 공무원 및 경찰, 가족 등에 의한 일상적 착취와 폭력
- 가족과 분리, 돈으로 종속된 관계, 인종 문제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기지촌 여성의 인권?

- 노동자로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 힘든 여건
- 국가-군-업주 등의 경제적·정치적 이득을 위해 여성의 희생을 강요
- 미군범죄에 대한 진상 해결의 어려움과 반복적 범죄 발생
 - ‘자발적’으로 기지촌으로 간 ‘타락한 여성’은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사회적 인식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기지촌 여성들의 저항

- 1967년 11월, 동두천에서 임신한 성매매 여성이 살해된 사건 - 동료들이 미7사단 정문에서 시위
- 1960년대 후반 기지촌 여성 살해 사건으로 저항운동이 조직화
- 기지촌 여성들 스스로 인권에 대해 의식하는 계기가 됨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기지촌 여성들의 저항

- 1960년 7월~8월, 부산에서 ‘양공주’들의 데모사건
- 악질업주의 착취행위를 규탄하고 노예생활 청산을 주장
- 이외에도 처우 개선, 미군에게 버림받아 자살한 동료들을 위한 시위 등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성매매 여성들이 미군부대장에게 인권유린에 대해 항의한 사건 (1970)

“위안부 70여명 데모 ‘인권유린부대장규탄’: [1970년 2월] 10일 오후 4시 30분쯤 시흥군 안양읍 미군 모 병기대대 정문 앞에서 위안부 70여명이 ‘인권유린 부대장을 규탄한다’는 등 플래카드를 들고 투석을 하는 등 데모를 벌이다 경찰과 헌병들의 제지로 1시간 만에 해산했다. 위안부들은 부대장 샘슨 중령이 지난 5일 전 위안부의 사진을 부대 내에 게시, 미검자와 수검자를 표시하겠다고 검진현장에 나타나 사진을 찍으려는 데서 발단, 소동을 빚은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1970년 2월 11일.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저항의 경험을 쌓고
협상력을 발휘하여
삶의 조건 개선하고자 한,
기지촌 여성들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전쟁신부’가 된 여성들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기지촌 여성들

- 미군과의 ‘국제결혼’에 대한 환상
- 1950년대 여성잡지의 소설과 에세이에 자주 등장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양부인’

- ‘미군과 배타적 관계 혹은 결혼으로 생활의 변화, 지위의 향상을 이룬 여성
- 가족과 민족으로부터 주변화된 기지촌 여성들,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가기를 희망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미군의 아내에 대한 이민 허가

- 1920년대 미국의 이민 제한정책 - 아시아인에 대한 전면적인 이민 금지
-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중 미군 병사와 외국인 아내의 결혼 사례
- 전쟁신부법 (War Brides Act), 1945 - 미군 배우자와 자녀의 입국 허용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한인 전쟁신부’ (군인아내, 국제결혼여성)

- 1951년, 최초의 한인 전쟁신부가 미국에 도착
- 1960년대 가족 단위의 한인 이주가 급증하기 전까지 미주 한인의 다수를 차지
- 기지촌 출신 여성이 많다는 이유로 재외동포의 역사에서 배제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미군의 배우자 입국 허가

- 결혼과 동시에 비자 취득 자격을 주기 때문에 까다로운 허가 절차
- 신랑의 구체적인 재정상태와 아내의 건강진단서 제출을 요구받음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미군의 배우자 입국 허가

- 한국인 전쟁신부의 경우 추가 항목으로 성별 여부에 대한 기록, 신원조사서 제출
- 이민국적법 부적격 요건에 일치하는 요구사항: 범죄경력, 공산주의 조직과의 관련성, 일부다처제 지지 여부, 성매매 경력 등에 대한 확인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미국은 왜 그녀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을까?

- 당시 두 나라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
- ‘해방자’로서 미국의 존재
- 그러나 이민 후 겪는 인종차별, 언어와 문화의 장벽

혼혈인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혼혈인

- 기지촌과 ‘양공주’에서 파생된 또다른 문제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기지촌을 둘러싼, 미국에 대한 이중적 시선

- 우방이자 동맹
- 침략자이자 약탈자
 - 한국 여성(기지촌 여성)에 대한 한국 남성의
독점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열등감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기지촌 여성

- 이중적 잣대로 한국사회에서 배제된 존재
- 한국 남성과 ‘정상적’ 결혼이 어렵고, 미군과의 동거나 결혼이 현실적 대안이 된 여성들
- 그 관계의 파생, ‘혼혈인’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혼혈인

- 출생에서부터 비난을 경험(외모, 성 윤리 등)
- 성 윤리를 ‘위반’하고 ‘오염’시킨 어머니, 부재하는 아버지
- 성인이 된 후에도 한국 사회에서 주변화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차별적 시선

- 혼혈 ↔ 순혈(‘순수한 피’): 상대적 개념
- ‘순혈은 깨끗하고 우월하다는 가치’를 함축
- 한국 사회에서 대다수의 혼혈인이 기지촌과 연관되어 부정적이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낙인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해방 후 문학작품 속의 혼혈아

- 대부분 여성이거나 성별이 특정되지 않은 유아로 등장
- 오정희 소설 <중국인 거리>(1979): 기지촌 여성 매기 언니의 딸, 혼혈아 제니는 장애아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 백인 혼혈아인 제니는 다섯 살이 되었어도 말을 못했다. 혼자 옷을 입는 것은 물론 손가락질도 못해 밤을 떠 넣어 주면 한 귀로 주르르 흘렀다. 검둥이가 있을 때면 제니는 늘 치욕이의 방에 있었다. 짐승의 새끼야. 할머니는 어쩌다 문 밖이나 베란다에 있는 제니를 보고 신기하다는 듯 혹은 할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털 가진 짐승을 볼 때의 혐오의 눈으로 보며 말했다. 나는 제니를 보는 할머니의 눈초리가 무서웠다. ”

오정희, <중국인 거리>, 《제3세대 한국문학 13권: 오정희》, 삼성출판사, 1983, 232쪽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문학작품 속 혼혈인의 모습

- 손상된 가부장제와 민족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장치
- 가부장적 권력을 손상하지 않도록 유아 혹은 여성으로 등장시킴
- ‘단일민족의 신화’를 강화하고, 한민족의 범주에서 혼혈인을 배제하는 효과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혼혈인, 혼혈아?

- 성인 혼혈인에 대해서도 종종 ‘혼혈아’라는 호칭을 사용
- 성인 혼혈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회 분위기의 반영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혼혈인에 대한 인식

- 한국전쟁 이후 혼혈인 증가와 유기가 사회 문제로 대두
- ‘여성의 부도덕’ ‘사회의 무질서한 자유와 남녀평등권’을 원인으로 지적하는 시선
- 혼혈인 출산 → ‘순수한’ 부계혈통을 잇지 못하고 ‘비국민’을 탄생시켰다는 인식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혼혈인에 대한 국가 정책

- 1950년대부터 혼혈인은 ‘국민’에서 배제
- 1948년 국적법: 부계혈통을 통해 국적을 부여하도록 규정
혼혈인은 자연적으로 국적을 획득할 수 없음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혼혈인에 대한 국가 정책

- 법적 지위 얻으려면 호적에 등재되어야 하지만
아버지가 입증될 수 없거나 비협조적이어서 등록이 불가능,
무국적의 존재로
-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 외가에 입적하거나
혼혈인이 스스로 일가를 창립하는 방법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혼혈인과 호적

- 호적이 없는 경우가 다수
- 1959년 치안국 집계, 전체 혼혈아동 중 67%가 무국적
- 대체로 어머니가 혼혈아의 존재 자체를 숨기려 했고
본가에서도 혼외 자녀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는 혼혈인들의 회고
- 호적이 있어야 교육(학교생활)이 가능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혼혈아동의 생활 조건

- 많은 경우 학교 진학을 원하지 않음 - 편견어린 시선 때문
- 1960년대 혼혈인전담 학교 설치 인가
- 혼혈아동의 절반 이상은 가정에서 양육되었으나
경제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열악한 환경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이승만 정부의 혼혈인 대책

- 혼혈인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해외입양 추진
- 혼혈인에게 기회와 자유를 주는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방식
- 많은 혼혈인이 해외 입장을 감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혼혈인=혼혈아'로 인식되었음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기록사진 속의 혼혈아

- 1966년 주명덕의 사진 전시회, “홀트씨 고아원”
- 경계의 눈빛, 불안과 초조한 감정을 보이는 혼혈아들의 모습
- 정체성의 혼란과 불안감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기록사진 속의 혼혈아

- 한글을 배우는 혼혈아들의 모습 - 감상자에게 동질감, 이질감을 동시에 전달
- 혼혈인을 타자로 보는 사회의 시선을 그대로 보여주고, 이들의 교육문제에 대한 관심 환기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이번 강의에서...

- 한국전쟁 중 등장한 위안대와 그것이 기지촌으로 정착된 과정
- 기지촌을 둘러싼 국가와 사회의 이중적인 태도와 경계짓기

6주차 한미관계와 미군기지, 그리고 여성 (1950~70년대) | 4차시 경계와 주변인



다음 강의에서...

- 1960-70년대의 본격적인 경제성장, 여성과 가족의 변화

REFERENCE



정민아, “미군 기지촌을 다루는 독립 다큐멘터리의 담론 변화,” 《인문사회21》 11(4), 2020.
 정용욱, “해방 직전 미주 한인의 독립운동과 미국 정부의 대응,” 《정신문화연구》 88, 2002
 정현백 외, 《글로벌시대에 읽는 한국여성사》 (사람의무늬, 2016).
 주진오 외, 《한국 여성사깊이 읽기》 (푸른역사, 2013).
 추이즈잉, “한미동맹관계의 역사, 현황 및 발전추세,” 《국방정책연구》 23(2), 2007
 Jimin Kim, “The Insignificance of Koreans During the Korean War,” 《비교한국학》 29(1), 2021.
 Ji-Yeon Yuh, *Beyond the Shadow of Camptown: Korean Military Brides in America* (NYU Press, 2002).
 Katherine Moon, *Sex Among Allie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REFERENCE



국회 심포지엄, “국가폭력과 여성인권: 미군 위안부의 숨겨진 진실,” 2015.
 김아람, “1950년대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해외 입양,” 《역사문제연구》 22, 2009.
 김연자, 《아메리카타운 왕언니, 죽기 오분 전까지 악을 쓰다》 (삼인, 2005).
 김원, “60-70년대 기지촌 계토화의 변곡점 - 특정지역, 한미친선협의회, 그리고 기지촌 정착운동,” 《역사비평》 112, 2015.
 김현선,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 (한얼아카데미, 2013).
 박정미, “한국 기지촌 성매매정책의 역사사학, 1953-1995년: 냉전기생명정치, 예외상태, 그리고 주권의 역설,” 《한국사회학》 49(2), 2015.
 박정미, “한국전쟁기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위안소’와 ‘위안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7(2), 2011.
 박종현, “다큐멘터리 사진 속에 나타난 한국 전쟁의 잉여와 상처-혼혈인을 바라보는 한국 사진의 시선,” 《기초조형학연구》 48, 2011.
 박종현, 민병욱, “분단 한국의 속죄양-양공주를 바라보는 한국 사진의 시선,” 《기초조형학연구》 12(4), 2011.
 여지연, 임옥희 역, 《기지촌의 그늘을 넘어》 (삼인, 2007).
 이나영, “글/로컬 젠더질서와 한반도 여성의 몸: 일본군‘위안부’와 미군 기지촌 ‘양공주,’” 《동방학지》 161, 2013.
 이나영, “기지촌의 공고화 과정에 관한 연구 (1950-60): 국가, 성별화된 민족주의, 여성의 저항,” 《한국여성학》 23(4), 2007.
 이상현, 조윤영, “미국의 세계전략과 주한미군: 80년대 말 철군 논의와 한반도 안보의 연계성에 관한 고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1), 2005.



기획·조정
이화진·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